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Parenting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ung-Ah Ju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Chosun University

Soo Jin Le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Kyungil University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parenting factor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using the short-term longitudinal design. A total of 585 parents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Gyu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tudy: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were measured three times with five month intervals and children's personality and parenting behaviors were measured once, only at the first time-point. Cohort sequential design and latent growth curve model was used for analyses according to the sex of childr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ternalizing problems showed stability in both female and male children groups. Secon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the identified pattern subgroups, harm avoidance was a strong predictor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across subject groups and persistence and self-directednes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emale group. Third, parental control predict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girls while no parenting effects were reported in boy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appropriate intervention for those with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study.

Keyword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personality, parenting, developmental trajectory

* August 2014, KPA Annual Convention Poster Presentation.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Soo Jin Le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College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Kyungil University 50 Gamasil-gil, Gyeongsan, Gyeongbuk 38428 South Korea.
Fax: 053-600-5259, E-mail: leesooj@gmail.com

아동의 기질(temperament)과 부모 양육(parenting)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교육 관련 종사자와 더불어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Karreman, de Haas, van Tuijl, van Aken, & Dekovic, 2010; Leve, Kim, & Pears, 2005). 특히 공격성, 주의산만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외부의 관찰자에 의해 쉽게 발견되고 행동 수정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지만 우울과 불안으로 대표되는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내재화 문제행동이 또래관계의 어려움, 학업적 성취의 손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오며(Last, Hansen, & Franco, 1997; Shaffer, Fisher, Dulcan, & Davies, 1996), 품행문제와 같은 외현화 장애를 포함하는 정신과 장애로 연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Cole, Peeke, Martin, Truglio, & Seroczynski, 1998; Zahn-Waxler, Klimes-Dougan, & Slattery, 2000)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행동 혹은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는 일반 아동보다 상담센터나 병원 장면에 내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아동의 발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3). 그런데 아동기는 성인기와는 달리 각 문제행동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문제가 아닌 넓은 요인(wide-band)을 사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Achenbach와 Edelbrock(1986)이 개발한 아동기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아동문제행동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는 넓은

요인을 활용한 검사도구이며 동시에 차원적(dimensional) 접근을 통해 임상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도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은 아동기 시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tanger & Verhulst, 1995; Twenge & Nolen-Hoeksema, 2002). 그러나 최근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Bongers et al., 2003; Walden & Garber, 1994). 예를 들면 Leve 등(2005)은 여아의 경우 10세까지는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10세 이후에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Bongers 등(2003)도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연령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특히 Bongers 등(2003)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CBCL의 각 증상별로도 살펴보았는데, CBCL의 불안/우울 증상이 남아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지만, 여아의 경우 아동기에 걸쳐 천천히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BCL의 신체증상 역시 남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지만 여아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기에 걸쳐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차는 우울 혹은 불안 증상만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동 우울증 검사를 이용한 310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아의 우울증은 13세 이전에는 오히려 남학생보다 다소 적었다가 13

세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남아는 13세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wenge & Nolen-Hoeksema, 2002). Angold 등(2002)도 역시 남아의 우울 점수가 아동기 중기에서 후기에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우울 증상의 경우 여아는 청소년기 이후 계속 증가하지만 남아는 비교적 안정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불안 증상은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erikangas et al., 2010), 증상 수준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불안 증상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le, Raaijmakers, Muris, van Hoof, & Meeus, 2008; van Oort, Greaves-Lord, Verhulst, Ormel, & Huizink, 2011).

초등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국내 선행 연구들 역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이 안정되게 유지되기 보다는 변화한다고 보고하였다(Choi, 2010; Jwa & Byoen, 2010; Kim & Choi, 2010; Lee, 2008; Seo, 2008). 예를 들면, Jwa와 Oh(2011)는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 4 패널의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성장에 따라 내재화 문제의 발달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이러한 발달 경로를 살펴본 연구들은 유아를 이용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 양상을 살펴본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Kang & Oh, 2011), 대부분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 패널조사의 패널 자료를 활용한 경우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

하여 예방적 접근을 피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예측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축, 신체증상 호소, 불안/우울 등을 포함하는 CBCL 내재화 문제행동 척도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 양상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일찍부터 연구자들은 아동의 내부적, 선천적 취약성으로 기질 요인을, 외부적, 후천적 요인으로 양육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친구 스트레스(Kim & Choi, 2010)나 또래 애착(Jwa & Byeon, 2010), 학업 성취감(Seo, 2008)이나 학교적응(Jwa & Byeon, 2010), 부모 및 또래·교사(Jo, 2009), 부정적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Jwa & Byeon, 2010; Jwa & Oh, 2011) 등을 탐색한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기질(temperament)과 같이 아동 개인의 타고난 정서적 경향성과 이를 바탕으로 부모를 포함한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질적 특성을 조절하는 능력인 성격(character)을 포함하는 인성을 예측변인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진 종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Cloninger(1994)에 따르면 인성이란 기질과 성격의 통합물로, 기질은 감정적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토대이며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성격은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의 토대가 되는 자기개념의 고등 인지기능으로, 성격은 기질과 일생동안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인 기능의 발달과 발현을 조절한다고 하였다(Wong & Cloninger, 2010). 즉 기질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개인의 목표에 맞

도록 조정하는 것을 성격으로 보았으며, 성인의 경우 인간적인 성숙을 반영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보았다(Josefsson et al., 2013).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인성(personality) 모델을 바탕으로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활용하여 내재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기질 차원인 위협회피(HA)가 강력한 취약요인으로 나타났다(Gu & No, 2012; Kim & Min, 2006; Rettew, Stanger, McKee, Doyle, & Hudziak, 2006). 또한 성격의 자율성(SD)도 내재화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6). 예를 들면 Kim과 Min(2006)은 중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높은 위협회피 성향은 낮은 자율성과 더불어 우울에 대한 취약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질에 대한 영향력은 자율성과 같은 성격적인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피력함으로써 예측 변인의 연구에 있어 개인의 기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질(temperament)을 조절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인성(personality)으로써 성격(character)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Cloninger & Zohar,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 뿐만 아니라 성격 차원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별에 따라 이러한 기질과 성격 차원의 서로 다른 영향력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특정 문제행동과의 높은 관련성을 가진 기질을 조절할 수 있는 성격(character) 발달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Josefsson 등(2013)은 부

모의 적대적 양육이 성인이 된 아동의 기질보다는 성격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인성 모델에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모의 양육은 아동의 타고난 기질을 조절하는 성격(character) 발달에 영향을 미쳐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 긍정적인 양육이란 온정적이고 따뜻하게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과 수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며(Cicchetti & Toth, 1998), 부모의 지지나 반응성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ber, Stolz, & Olsen, 2005; Bayer, Sanson, Hemphill, 2006). 반대로 신체적, 언어적 처벌 요인을 포함하는 부모의 적대적/공격적 양육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Lansford et al., 2002; Leve, Kim, & Pears, 2005). 또한 온정성이나 관심의 부족, 때로는 아동이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부(rejection)적 양육(Cytryn & McKnew, 1998) 혹은 양육자로부터 수용받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주양육자를 따뜻하다고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Kim, Kim, Koh, & Leventhal, 2013; Mackintosh, Myers, & Kennon, 2006). 최근 들어 과보호적, 통제적 양육 역시 일상생활에서의 도전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기술이나 기회를 습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unola & Nurmi, 2005; Zarra-Nezhad et al., 2014). 예를 들면, Zarra-Nezhad 등(2014)은 교사가 평정한 1-3학년 초등학교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변인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의 심각도를 약화시키는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서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따뜻한 양육을, 내재화 문제행동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이며 역기능적인 요인으로서 공격적/적대적이며, 거부적이고, 과보호적/통제적 양육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국내의 경우 양육과 관련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대개 부모에 대한 애착양식(Lee, 2008)이나 부부갈등(Jwa & Byeon, 2010) 혹은 가족결손(Jwa & Oh, 2011) 등을 주제로 살펴본 수준으로 내재화 발달경로에 양육행동을 예측변인으로 연구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이 어떤 발달경로를 그리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발달경로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경향성인 기질과 이러한 기질을 조절하는 특성을 가진 성격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발달경로를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아동기 문제행동에 대한 사전개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 법

연구 대상

경기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에 재학하

고 있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일 학년을 유지하는 1년 동안 5개월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1차 설문은 2010년 4월, 2차 설문은 2010년 9월, 3차 설문은 2011년 2월에 실시되었다. 반복측정 및 실시 회수와 이에 따른 감소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샘플수를 얻고자 각 학년의 전 학급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에 참여한 사람은 아동의 보호자였다. 설문지의 윤리적 실시를 위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회(DRC: Department Review Committee)를 통과하였다.

평가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응답에 참여한 평가자 중 부모 이외의 다른 보호자(예: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등)가 응답한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3차례에 걸쳐 모두 실시된 설문(예: CBCL)의 결측치를 계산하여 결측치의 개수가 해당 척도에서 10%가 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뢰로운 점수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많은 수의 결측치가 있을 때 발생하는 모델 수렴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1차, 2차 및 3차에 모두 참가한 아동들을 본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통합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Table 1과 같다. 학년에 따른 아동들의 성별 분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2, N=585)=3.168, p=.205$.

측정 도구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Oh와 Kim(2011)이 번역 및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Subjects in Elementary Students

	1 st grade	2 nd grade	3 rd grade	Total
Boys	52 (61.9%)	123 (51.0%)	135 (51.9%)	310 (53.0%)
Girls	32 (38.1%)	118 (49.0%)	125 (48.1%)	275 (47.0%)
Total	84 (14.4%)	241 (41.2%)	260 (44.4%)	585

행동평가척도(CBCL 6-18: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CBCL 6-18은 총 1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별로 0점에서 2점까지 총 3점 척도로 평가하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문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을 잘 알고 잘 관찰할 수 있는 주 양육자(주로 어머니)이다. CBCL은 크게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1) 불안/우울, 2) 위축/우울, 3) 신체증상을 측정하는 3개의 소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CBCL의 부모 보고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6이었다.

아동의 기질 및 성격

아동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아동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7-11: JTCI 7-11)을 사용하였다(Min, Oh, & Lee, 2007). 이 척도는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 (1994)이 제작한 '성인용 기질 및 성격 검사'를 바탕으로 독일의 Schmeck, Meyenberg와 Pouskta (1995)가 아동용으로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Min, Oh와 Lee(2007)가 Cloninger와의 협의 하에

독일판 JTCI 7-11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JTCI 7-11은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보호자가 자녀의 기질과 성격을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0점부터 4점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다. 각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부모가 아동이 해당 영역의 기질 혹은 성격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1-3학년의 내적 일치도는 .74-.82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59-.78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양육 행동

부모 양육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Rohner (1989)가 개발한 부모 수용-거부/통제 질문지 (parental acceptance-rejection/control questionnaire: PARQ/C)를 사용하였다. Rohner와의 개별적 연락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아동용 부모 수용-거부/통제 질문지를 구할 수 있었으며, 각 문항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과거 문제를 현재에 맞도록 수정하여 문항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부모 수용-거부/통제 질문지는 온정적 부모양육 20문항, 적대적/공격적 부모양육 15문항, 방치적/무관심 부모양육 15문항, 미분화된 기타 거부적 부모양육 10문항(적대적, 방치적 양육에 포함

되지 않는 미분화된 거부적 부모양육), 통제적 부모양육 13문항 등 총 7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호자의 양육 태도를 묻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각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부모가 해당 영역의 양육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PARQ/C 부모 보고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1이었다.

자료 분석

내재화 문제행동이 각각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 곡선 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과 동시대 집단 시계열 설계(cohort sequential design)를 실시하였다. 동시대 집단 시계열 설계는 장시간에 걸친 변화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측치를 사용하는 기법이다(Duncan, Duncan, & Hops, 1994).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 집단을 하나의 동시대 집단(cohort)으로 간주하여 첫 번째 동시대 집단의 두 번째 측정치가 두 번째 동시대 집단의 첫 번째 측정치와 맞물리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동시대 집단은 10개월의 연령 범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설계 내에서는 두 번째 시점에서 첫 번째 동시대 집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두 번째 동시대 집단의 구성원의 일부와 연령이 중첩되게 된다. 이렇듯 매 시점에서 연령대가 겹쳐짐으로써 각 동시대 집단의 변화선들이 하나의 발달 경로(trajjectory)로 연결되어 통계적 검증이 가능해진다.

잠재성장 곡선모형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는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연구 표집의 평균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초기치

(intercept)와 변화율(slope)로 이루어진 함수를 산출한다(Muthen & Muthen, 2000).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성장 요인(growth factor) 산출을 위해 측정 간격을 고려하여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를 0, 1, 2, 3, 4로 고정하였으며 초기치는 1차 측정 시기의 점수가 된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정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TLI(Tucker-Lewis Index; Tucker & Lewis, 1973)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Browne & Cudeck, 1993)를 이용하였다. CFI와 TLI는 .95이상일 때,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Hu & Bentler, 1990). 본 연구에서는 무변화 모형(no growth model)과 선형 모형(linear model), 이차함수 모형(quadratic model)의 비교를 통해 우수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을 선택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의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 적절한 모형에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이들 변인들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의 초기치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잠재성장 곡선모형은 Mplus 5.21을 사용하였으며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

CBCL를 통해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1차, 2차, 3차 점수(T1, T2, T3)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학년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초기 수준에 따른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Reported by Parents

	Boys (n=310)			Girls (n=275)		
	1 st score	2 nd score	3 rd score	1 st score	2 nd score	3 rd score
1 st grade	4.14 (3.73)	4.33 (4.03)	3.60 (3.49)	6.31 (7.58)	5.25 (4.96)	4.69 (4.73)
2 nd grade	4.89 (4.47)	4.42 (4.22)	4.14 (4.04)	6.08 (4.69)	6.49 (5.21)	5.95 (5.02)
3 rd grade	5.31 (4.97)	5.07 (4.43)	4.67 (4.15)	5.90 (4.76)	5.92 (5.30)	5.90 (4.76)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학년과 성별에 의한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내재화 행동 문제 점수에서 성별의 주효과($F=8.367, p<.05$)는 유의미하였으나 학년의 주효과($F=.224, p=.800$) 및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797, p=.451$)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내재화 발달 경로는 학년에 따라 상승하거나 줄어드는 변화는 없으나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 행동이 남학생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내재화 문제행동의 측정별 평균 추정치를 Mplus 결과물에서 출력된 값들을 참고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 곡선 모형을 무변화 모형(no growth model)과 선형모형 및 이차함수 모형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Table 4). 이차함수 모형은 수렴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검증 결과 무변화 모형보다는 선형 모형의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 특히 RMSEA의 값이 양호하였으며, 이차 함수 모형은 수렴하지 않아,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에서 선형 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선형 모형에서 산출된 초기치와 변화율을 각각 제시하였다(Table 5).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의 평균과 분산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치에서 개인 간에 차이가

Table 3
Mean Estimat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T1	T2	T3	T4	T5
Boys	4.542	5.017	4.671	4.505	4.263
Girls	7.292	5.819	6.036	5.810	5.892

Table 4

Index Scor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No Growth Model and Linear Model

		$\chi^2(df)$	<i>p</i>	CFI	TLI	RMSEA
Boys	No growth model	12.281(6)	0.0560	0.976	0.972	0.058
	Linear model	10.285(7)	0.1730	0.988	0.988	0.039
Girls	No growth model	11.603(6)	0.0714	0.981	0.978	0.058
	Linear model	5.739(7)	0.5706	1.000	1.004	0.000

Table 5

Intercepts and Slope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Mean	Variance			Mean	Variance
Boys	Intercept	5.112 ^{***}	14.449 ^{***}	Girls	Intercept	6.090 ^{***}	22.116 ^{***}
	Slope	-0.209	0.788		Slope	-0.070	1.672 ^{**}

* $p < .05$. ** $p < .01$. *** $p < .001$.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발달 양상을 나타내는 변화율에서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내재화 문제행동은 시간에 따라 감소 혹은 증가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및 여학생은 서로 다른 초기 점수에 의한 차이를 유지하는 형태의 발달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학생의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미하므로 발달 경로의 이질성이 시사된다. 즉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초기 점수는 유사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띄는 발달경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 및 여학생은 서로 다른 초기 점수에 의한 차이를 유지하는 형태의 발달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경로의 변화를 제외한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초기치를 예측하는 변인(기질 및 성격 변인과 양육행동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잠재성장곡선의 선형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6

Index Score of Latent Growth Curve Model (Linear Model) in Internalizing Problems

		$\chi^2(df)$	<i>p</i>	CFI	TLI	RMSEA
Boys		74.131(58)	0.0751	0.957	0.950	0.030
Girls		89.415(58)	0.0051	0.932	0.921	0.044

Table 7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Character and Parenting Behaviors Reported by Parents

		Boys (n=310)	Girls (n=275)	t
Temperament	Novelty Seeking	19.05 (6.97)	17.86(7.51)	1.98*
	Harm Avoidance	18.32 (7.53)	20.26 (8.18)	-2.99**
	Reward Dependence	29.50 (6.38)	30.10 (6.39)	-1.13
	Persistence	25.19 (7.04)	26.60 (6.63)	-2.49*
Character	Self-Directedness	33.40 (5.68)	33.97 (5.79)	-1.22
	Cooperativeness	36.59 (6.04)	37.33 (6.37)	-1.43
	Self-Transcendence	10.20 (4.81)	13.85 (4.96)	-9.02***
Parenting	Warm	71.48 (6.46)	71.31 (6.25)	.332
	Hostile	32.14 (7.01)	32.72 (6.92)	-1.01
	Neglect	22.09 (4.59)	22.99 (4.89)	-2.31*
	Other rejection	16.30 (3.94)	16.64 (4.09)	-1.01
	Control	39.84 (3.93)	39.78 (3.73)	.2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8
Predictors of Intercepts Based on the Gender of Children

		Boys			Girls		
		Estimates	S.E.	t	Estimates	S.E.	t
Temperament	Novelty Seeking	.033	.040	.833	-.008	.050	-.156
	Harm Avoidance	.191	.030	6.357***	.177	.032	5.500***
	Reward Dependence	-.004	.037	-.121	-.053	.043	-.1225
	Persistence	-.022	.037	-.604	.088	.041	2.134*
Character	Self-Directedness	-.022	.053	-.406	-.140	.056	-2.492*
	Cooperativeness	.028	.044	.642	-.009	.054	-.157
	Self-Transcendence	.075	.047	1.586	.077	.052	1.485
Parenting	Warm	-.056	.037	-1.514	-.050	.046	-1.103
	Hostile	.039	.042	.909	.007	.049	.149
	Neglect	.025	.053	.467	.084	.061	1.371
	Other rejection	.053	.069	.771	.153	.080	1.906
	Control	.025	.052	.4937	.136	.064	2.120*

* $p < .05$. ** $p < .01$. *** $p < .001$.

예측변인을 투입한 잠재성장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남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기질과 성격 및 양육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미치는 인성 및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가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기질 및 성격변인과 양육변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때 위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과 낮은 자율성 성격, 그리고 높은 통제적 양육이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기질 및 성격변인과 양육변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때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성 성격의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통제적 양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를 탐색한 후 그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인성 및 부모양육행동을 살펴봄으로써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과 여

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녀에 따라 초기치 평균값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안정적인 발달경로를 보일 것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낮은 초기값으로,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남학생보다 높은 초기값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변화(증가 혹은 감소)하기 보다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아동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통적 개념을 지지하는 것으로(Stanger & Verhulst, 1995; Twenge & Nolen-Hoeksema, 2002), 특히 5살때부터 발달 경로를 추적하여 살펴본 Keiley 등(2003)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에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살펴본 일부 선행연구와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Leve 등(2005)의 연구에서 10세까지 여아와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꾸준히 증가하였던 결과와도 다르며, Bongers 등(2003)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남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여아의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발달경로와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측정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겠다. 즉 본 연구는 1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측정 시기를 이용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한 반면, Leve 등(2005)나 Bongers 등(2003)은 동일 대상을 시간의 변화를 따라 추적하여 측정한 장기종단적 접근을 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 년 이상의 장기종단적 접근을 취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여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학생 및 여학생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면, 초기치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기치의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초기치를 보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발달경로를 유지하는 하위집단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초기치를 보이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하위집단을 탐색할 수 있는 일반성장 혼합모형(*general growth mixture model*)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 집단을 탐색하고, 내재화 문제행동의 고위험군 집단을 형성하는 예측변인을 살펴봄으로써 내재화 문제행동 학생들의 조기 발견 및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달경로를 바탕으로 변화율은 제외하고 초기치에 미치는 인성과 양육의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위험회피 기질만이 발달경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위험회피 점수는 높은 내재화 문제행동 평균값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학생의 경우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과 더불어 자율성 성격 차원이 발달경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제적 양육이 추가적인 설명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높은 위험회피 점수와 인내력 기질 차원과 더불어 낮은 자율성 성격 차원 점수, 그리고 높은 통제적 양육 점수가 여학생의 높은 내재화 평균값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하면 먼저 위험회피 기질은 성별

에 상관없이 내재화 문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횡단 혹은 종단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Kim & Min, 2006; Rettew, et al., 2006),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Moon과 Lee(2013)의 연구에서 정상집단이 문제행동집단에 비해 위험회피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위험회피 기질이란 처벌 혹은 보상의 박탈에 의해 행동이 억제되는 것으로, 내재화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험회피가 높은 개인은 비관적이고 지나치게 수줍어한다거나 쉽게 지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많고 불확실한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며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수줍어하는 등 내재화 문제행동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 및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초기치 값은 위험회피성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인내력 기질은 여학생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 기질과 더불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내력이란 간헐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최종적인 성취를 위해 일정기간 행동이 유지되는 경향성을 말하며, 인내력이 높은 아동은 부지런하고 끈기 있으며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보이며,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낙관적인 특성을 지닌다.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경우 불안과 우울, 신체 증상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비효율적인 방법에만 매달려 현재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경직된 태도를 고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남아

의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낮은 인내력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및 임상장면에서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이 정상집단에 비해 낮은 인내력을 보고한다는 연구(Kim et al., 2006; Luby, Svrakic, McCallum, Przybeck & Cloninger, 1999)와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성차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인내력 기질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우선적으로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율성 성격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다르게 낮은 자율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율성 성격은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자아 개념을 의미하며, 인간적 성숙과 통합된 인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자율성이 높은 경우 본인을 신뢰하며, 목표에 맞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으며 뚜렷한 정신병리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Wong & Cloninger, 2010). 대개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격보다는 기질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결과는 기질 뿐만 아니라 성격도 성인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문제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의 생물학적 성숙이 심리사회적 성숙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 연구에서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일지라도 기질 뿐만 아니라 성격 차원까지 고려하는 후속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양육행동 중 적대적 양육이나 방치적 양육이 아닌 통제적 양육이 여학생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과보호 혹은 통제(control)가 위협이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 자신의 불안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발달시킬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불안 및 우울 증상을 야기한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Burbach, Kashani, & Rosenberg, 1989; Rapee, 1997). 또한 통제, 침입(intrusiveness), 과보호로 점철된 양육 방식은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된 믿음에 손상을 주고 이는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Carton & Nowicki, 1994; Rudolph, Kurlakowsky, & Conley, 2001). 통제적 양육은 거부적 양육의 또 다른 형태로 서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Rohner & Rohner, 1981)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적절히 대처(coping)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아동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없게 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시작된 핵가족의 가속화로 인해 일가구 일자녀를 형성하면서 자녀들은 예전 세대에 비해 부모로부터 지나친 애정과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통제적/과보호적 양육은 사회문화적으로도 늦게 철이 든다고 기대되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통제적 양육행동이 지나칠 경우 여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를 남녀를 구별하여 살펴보고, 그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성과 양육을 중심으로 단기 종단적인 연구 설계에 의해 그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높은 위협회피 기질은 남녀 모두에게서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의 상승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 기질과 더불어 인내력 기질, 그리고 낮은 자율성 성격 차원과 높은 통제적 양육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의 상승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질을 토대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반영하는 성격 차원을 문제행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검진(screening)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인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결과를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사전개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에 취약할 수 있는 높은 위험회피 기질을 갖는 아동,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질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 향상을 위한 개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남학생의 경우 이러한 위험회피 기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예방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통제적 양육 행동을 지양하고 보다 온정적이고 덜 엄격한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개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Williams 등(2009)은 Baumrind(1967)의 권위적(authoritative), 독재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양육 스타일을 활용하여 4-15세에 이르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권위적 양육이 다른 양육에 비해 자녀들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덜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아동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양육을 구사하지 않는 Baumrind의 '권위적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평정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다르게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부모와 같은 외부의 평정자가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학생 스스로가 평정한 것보다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 혹은 교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1년 미만의 제한적인 시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다룬 단기 종단 연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가 안정적으로 나온 것은 전통적인 발달경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1년 동안의 짧은 추적 기간 및 5개월 간격의 짧은 반복 측정으로 인해 야기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실제 한 학년을 대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측정 한 것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긴 발달연령대를 아우르는 장기 종단적 접근을 취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 여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공병률(comorbidity)이 높으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넓은 요인(broad-band)을 활용한 접근법으로 인해 이러한 공병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예측변인들이 내재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행동에 대한 발달경로 및 그 예측변인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변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6). *Manual for the Teacher's Report Form and Teacher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gold, A., Erkanli, A., Silberg, J., Eaves, L., & Costello, E. J. (2002). Depression scale scores in 8-17 year olds: Effects of age and gen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 1052-1063.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 1144-1159.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 1-137.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yer, J. K., Sanson, A. V., & Hemphill, S. A. (2006). Parent influences on early childhood internalizing difficulti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42-559.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179-192.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bach, D. J., Kashani, J. H., & Rosenberg, T. K. (1989). Parental bonding and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417-429.
- Carton, J. S., & Nowicki, S. (1994). Anteced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locus of control of reinforcement: A critical review.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0*, 31-81.
- Choi, J. A. (2010). The reciprocal causation between delinquency and dep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Test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Studies on Korean Youth, 23*, 143-169.
- Cicchetti, D., & Toth, S. L.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merican Psychologist, 53*, 221-241.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Center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Washington University.
- Cloninger, C. R., & Zohar, A. H. (2011). Personality and the perception of health and happines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8*, 24-32.
- Cole, D. A., Peeke, L. G., Martin, J. M., Truglio,

- R., & Seroczynski, A. D. (1998). A longitudinal look at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451-460.
- Cytryn, L., & McKnew, D. H. (1998). *Growing up sad: Childhood depression and its treatment*.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 Duncan, T. E., Duncan, S. C., & Hops, H. (1994). The effects of family cohesiveness and peer encouragement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lcohol use: A cohort-sequential approach to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588-599.
- Gu, Y. I., & No, G. R. (2010). The comparative study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children with internalizing, externalizing disorders and comorbidity.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20.
- Hale, W. W. III, Raaijmakers, Q., Muris, P., Van Hoof, A., & Meeus, W. (2008).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anxiety disorder symptoms: A 5-year prospective communit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 556-564.
- Hu, L. T., & Bentler, P. M. (1990).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e Equation Modeling, 6*, 1-55.
- Jo, J. A. (2009). The effects of parents, peers and teachers upon changes in mental health on the part of adolescents: A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Studies on Korean Youth, 20*, 167-192.
- Josefsson, K., Jokela, M., Hintsanen, M., Cloninger, C. R., Pulkki-Raback, L., Merjonen, P., ... Keltikangas-Järvinen, L. (2013). Parental care-giving and home environment predicting offspring's temperament and character traits after 18 years. *Psychiatry Research, 209*, 643-651.
- Jwa, H. S., & Byeon, G. Y. (2010).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 from lat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The Korean Society School Social Work, 19*, 113-140.
- Jwa, H. S., & Oh, S. H. (2011). Gender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trajectory and predictors of internalizing problem.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 119-147.
- Kang, J. H., & Oh, K. J. (2011).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reschoolers' age, temperament and parenting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 1-21.
- Karreman, A., de Haas, S., van Tuijl, C., van Aken, M. A., & Dekovic, M. (2010). Relations among temperament,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 in young children.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3*, 39-49.
- Keiley, M. K.,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61-179.
- Kim, B. G., & Min, B. B. (2006).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temperament, character,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25, 221-236.
- Kim, D. H., Kim, Y. S., Koh, Y. J., & Leventhal, B. L. (2013). Relationship between behaviour problems and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in Korean youth.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9*, 194-201.
- Kim, J. C., & Choi, J. Y. (2010). Adolescents' individual change in overt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the effect of close friends. *Studies on Korean Youth, 21*, 123-147.
- Kim, S. J., Lee, S. J., Yune, S. K., Sung, Y. H., Bae, S. C., Chung, A., ... Lyoo, I. K.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ogenetic temperament and character and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s. *Psychopathology, 39*, 80-86.
- Lansford, J. E.,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Crozier, J., & Kaplow, J. (2002). 12-year prospective study of th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 physical maltreatment on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academic problems in adolescenc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6*, 824-830.
- Last, C. G., Hansen, C., & Franco, N. (1997). Anxious children in adulthood: A prospective study of adju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 645-652.
- Lee, J. L. (2008). Adolescents' attachments to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d delinquencie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7*, 563-574.
- Leve, L. D., Kim, H. K., & Pears, K. C. (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s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 505-520.
- Luby, J. L., Svrakic, D. M., McCallum, K., Przybeck, T. R., & Cloninger, C. R. (1999).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of a child self-report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84*, 1127-1138.
- Mackintosh, V. H., Myers, B. J., & Kennon, S. S. (2006). Children of incarcerated mothers and their caregivers: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 579-594.
- Merikangas, K. R., He, J. P., Burstein, M., Swanson, S. A., Avenevoli, S., Cui, L., ... Swendsen, J. (2010). Lifetime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in US adolescent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 Adolescent Supplement (NCS-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9*, 980-989.
- Min, B. B., Oh, H. S., & Lee, J. Y. (2007).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Manual*. Seoul: Maumsarang Inc.
- Moon, B. G., & Lee, J. S. (2013). Effects on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of the child's temperament, the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child's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1-60.
- Muthen, B. O., & Muthen, L. K. (2009). *Mplus User's Guide* (5th ed.).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 Oh, K. J., & Kim, Y. A. (2011). *ASEBA Child & Youth Behavior Checklist Manual*. Seoul: Huno

- Consulting Inc.
-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Rettew, D. C., Stanger, C., McKee, L., Doyle, A., & Hudziak, J. J. (2006). Interactions between child and parent temperament and child behavior problems. *Comprehensive psychiatry, 47*, 412-420.
- Rohner, R. P. (1989).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ology, 20*, 245-260.
- Rudolph, K. D., Kurlakowsky, K. D., & Conley, C. S. (2001). Developmental and social-contextual origins of depressive control-related beliefs and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447-475.
- Schmeck, K., Meyenburg, B., & Poustka, F. (1995). *Persoenlichkeitsfragebogen fuer Jugendliche-JTCL*. Frankfurt: Universitaet Frankfurt.
- Seo, M. J. (2008). Participation in bullying: Bystanders' characteristics and role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 79-96.
- Shaffer, D., Fisher, P., Dulcan, M. K., Davies, M., Piacentini, J., Schwab-Stone, M. E., ... Regier, D. A. (1996). The NIMH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 Version 2.3 (DISC-2.3): Description, acceptability, prevalence rates, and performance in the MECA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865-877.
- Stanger, C., & Verhulst, F. C. (1995). Accelerated longitudinal designs. In F. C. Verhulst & H. M. Cook (Eds.), *The epidemiolog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pp. 385-405).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Twenge, J. M., & Nolen-Hoeksema, S. (2002). Age, gender,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birth cohort difference on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578-588.
- Van Oort, F. V. A., Greaves Lord, K., Ormel, J., Verhulst, F. C., & Huizink, A. C. (2011). Risk indicators of anxiety throughout adolescence: The TRAILS study. *Depression and Anxiety, 28*, 485-494.
- Walden, T., & Garber, J. (1994). *Emo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rinciples and clinical issues in psychology and psychiatry*. London: Blackwell.
- Williams, L. R., Degnan, K. A., Perez-Edgar, K. E., Henderson, H. A., Rubin, K. H., Pine, D. S., ... Fox, N. A. (2009). Impact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parenting styl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early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 1063-1075.
- Wong, K. M., & Cloninger, C. R. (2010).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clinical practice. *FOCUS: Th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in Psychiatry, 8*, 199-215.
- Zarra-Nezhad, M., Kiuru, N., Aunola, K.,

Zarra-Nezhad, M., Ahonen, T., Poikkeus, A.,
... Nurmi, J. (2014). Social withdrawal in
children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the children's own
socioemo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5, 1260-1269.

Received February 28, 2015

Revised November 8, 2015

Accepted January 17, 2016

학령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 인성과 부모양육의 효과

정 승 아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 수 진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본 연구에서는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아동의 인성(기질과 성격)과 양육행동 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달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 지역 2곳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58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을 5개월 간격으로 총 3회 측정된 자료를 성별에 따라 구분한 후(남학생 310명, 여학생 275명), 동시대 시계열 설계 및 잠재성장 곡선모형을 활용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 및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성별에 상관 없이 다양한 초기치를 가지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변화율을 제외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 및 양육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아는 위험회피 기질만이, 여아는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 자율성 성격, 그리고 통제적 양육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내재화 문제행동의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남아의 경우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학생을, 여학생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 낮은 자율성 성격,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을 구사하는 부모를 가진 학생을 선별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시도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내재화 문제행동, 아동 인성, 양육행동, 발달경로